



## “吸煙시작 연령 낮을수록 위험 높다”

조이스슬린 엘더스 美의무총감은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이 낮을수록 담배를 끊기가 어렵고 건강에 손상도 많이 입힌다고 젊은 흡연자들에게 경고했다.

엘더스 총감은 최근 발표한 “젊은 이들의 흡연 예방”이라는 제목의 제 23차 의무총감 보고서에서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의 흡연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면서 “어린시절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나이들어 흡연을 시작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심하게 니코틴 중독 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은 담배를 끊기를 원해도 대부분 끊을 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64년 흡연이 암 및 다른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첫 보고서를 낸 뒤 광범위하게 배포되는 의무총감의 흡연과 건강에 관한 보고서는 30년째 발행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미국인들의 흡연률은 현저히 낮아졌으나 지난 80년대에는 흡연률의 감소 속도가 느려졌고 최근의 미국 정부 통계에는 미국 청

년의 3분의 1이 담배를 피우거나 씹는 담배를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나이가 거의 대부분 17~18세, 고교 졸업 전이라고 밝혔다.

엘더스 총감은 이같은 현상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담배회사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이 엄청난 자원을 투입, 젊은층의 흡연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TV와 라디오를 통한 담배광고가 금지된 뒤 담배회사들은 과거의 방법보다 오히려 대상연령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운동경기를 많은 광고비를 들여 후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그는 주장했다.

그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거나 사망하고 있으나 조기흡연자들이 늘어 흡연인구를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금연 교육 실시, 10대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법의 집행 강화, 담배값을 올리는 등의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했다.

